

# 어머니의 취업에 따른 자녀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A Study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Maternal Behavior  
Related to maternal employment variable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과정 안재연  
교수 박성연

Dept. of Household Administration,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 Ahn Jae Yeon

professor : Park Seong Yeon

##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 방법 | 참고 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maternal behavior, their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employment. The subjects were 245 4th-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working-mother.

Park, and Lee(1990)'s KMBI and Pease et al.(1979)'s ISCS were used to measure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respectivel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ere found according to mother's satisfaction with job and preference to job, the degree of father's support, birth order, income level, and father's educational level.

2.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were found according to mother's preference to job and the motivation of employment, the degree of father's practical support, and parental educational level.

3. Through the path analysis, maternal employment variables related directly or indirectly to each factor of social competence were identified.

## I. 서론

### A.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도시화 현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변화로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녀를 둔 어머니의 취업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초기 애착이나 적응문제 및 양육행동과 관련지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영역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초기 아동기의 사회적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사회문제(Cowen, Pederson, Babin, Izzo & Trost, 1973) 및 후의 성인기의 부적응(Pettit, Dodge & Brown, 1983)과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므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한편, 아동의 여러 사회적 행동양식이 가정내에서 습득된다는 결과들(MacDonal & Parke, 1984; Putallaz, 1987)으로써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계층이나 부모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박용인, 1988; 최옥화, 1990),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연구들 중 대부분(Hock, 1980; 윤정혜, 1990)이 단순한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여왔고, 연구결과에서도 취업모들의 양육행동이나 취업모 자녀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취업영향에 대해 일관된 경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취업모에 대한 비 일관적인 결과들은 아동발달에 미치는 환경으로서의 가족을 단순한 가정내의 부모자녀관계로서 그 영향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Bronfenbrenner(1986)가 주장하였듯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가족원이나 어머니가 집하는 가정 외 환경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모자녀간 상호작용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는

성인의 관점보다는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가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Bronfenbrenner, 1961)에 근거해 볼때, 특히 취업모 자녀의 경우는 아동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어머니와의 관계 및 아동발달에 미치는 취업의 영향에 대해 좀더 분명히 시사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한 취업유무에 따른 비교에서 좀더 확장하여,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 직업 선호도,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 동기, 근무시간, 근속년수, 아버지의 지지도와 같은 다양한 취업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모형을 통해 밝혀 봄으로써, 취업모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B.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 살펴 볼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취업 변인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2.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취업 변인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4.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양육행동에는 차이가 있는가?
5. 어머니의 취업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A. 사회적 능력의 개념

사회적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광범위

한 영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개념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첫째, 동물 행동학적 접근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주어진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적응의 관점으로 본다(O'Malley, 1977). 둘째, 인성에 대한 구조적 접근방법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다양한 구성인자로 형성되어 있는 인성구조 중에서 긍정적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으로 보며, Schaefer(1961)는 긍정적 속성의 행동을 애정, 접근성, 외향성으로 보았다. 셋째, 사회적 상호작용측면에서는 사회적 능력을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대인관계의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으로 보았다(O'Malley, 1977). 그 중 Pease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적 능력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 여섯가지 요인 즉, 과제 지향성, 지도력, 신체적 활동성, 부모에 대한 애정 등의 긍정적 행동영역<sup>9</sup> 나타내는 요인과 방해성, 불안정성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요인을 분류하였다(Pease, Clark & Crase, 1979).

최근에는 사회적 능력을 특수한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수단과 긍정적인 발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적합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Ford, 1982).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Malley의 사회적 상호작용적 관점을 취하여,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대인관계의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 B. 사회적 능력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들간의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Baumrind와 Black(1967)은 부모가 일관성 있고, 애정적이며 어느 정도의 처벌과 통제를 행할 경우 아동은 자기 통제적이며, 친밀감이 있고 탐구적이라고 하였다. Ainsworth와 Bell(1974)은 어머니가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것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도움을 준

다고 하였다. MacDonald와 Parke(1984)는 놀이상황에서 각 부모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이것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또래간에 인기있는 아동의 어머니는 언어적인 자극을 주고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잘 놀아주었는데, 이런 아동은 또래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관대하고 상호작용에서 우세하였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살펴 본 연구들은 크게 사회적 상호작용적 관점으로본 Pease 등의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김정아, 1990; 박법실, 1987)와 또래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이혜영, 1986)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면, 어머니가 합리적인 지도를 수행하고(김정아, 1990), 행동에 한계를 정해주면서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경우(박법실, 1987),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혜영(1986)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거부적이고 엄격하며, 모순적인 경향을 띠수록, 아동은 또래 관계를 원활하게 맺지 못하고 다른 아동과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능력에 대한 아동자신의 지각을 연구한 공인숙(1989)은 부모를 온정적이면서 통제적이라고 지각하는 아동은 자신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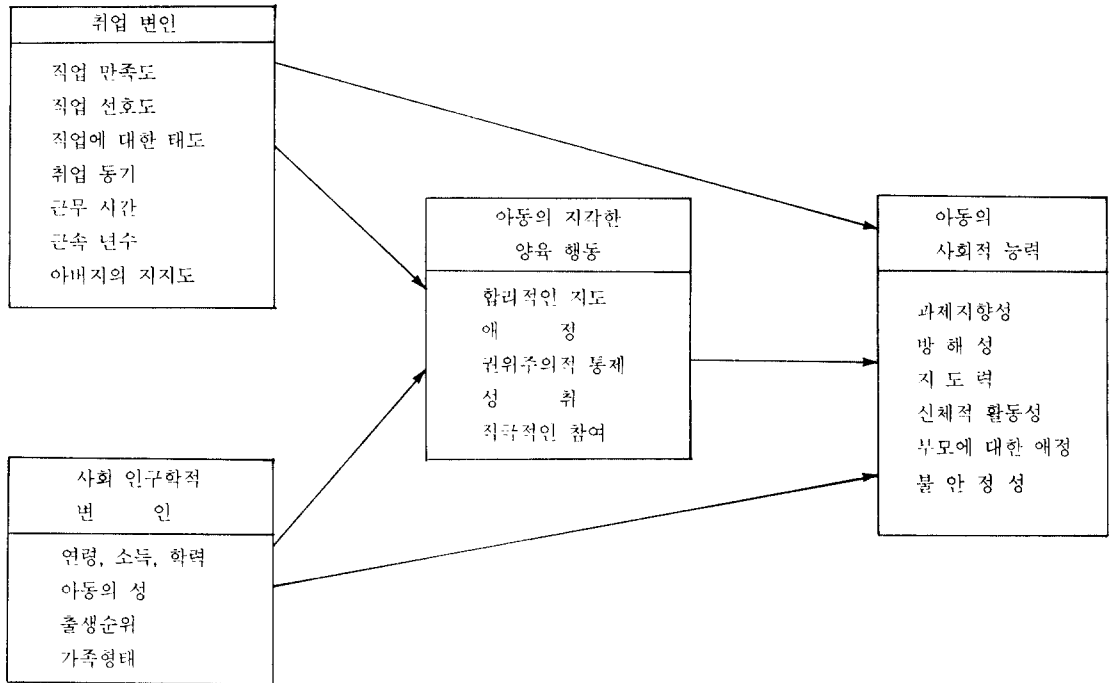
이와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일반적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취업모에게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 C. 취업모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변인들

### 1. 취업 변인

(1) 직업 만족도, 직업 선호도, 직업에 대한 태도  
Hoffman(1961)은 3-6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그림 1〉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연구모형

연구에서, 취업한 어머니들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어머니가 가책을 느끼고 과보호하는 입장(guilt-overprotection)과 소홀하게 하는 입장(neglect-theory)으로 구분되며, 전자의 입장은 어머니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에 나타나고, 후자의 입장은 직업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직업에 만족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가책을 느끼고 많은 애정으로써 그것을 보상하려 하며, 자녀 훈육시 적절하게 가벼운 체벌을 사용하는 반면, 직업에 불만족하는 어머니들은 어머니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며 덜 애정적이고 덜 훈육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는 아동발달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유신희(1986)의 연구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이 신체적, 사회적, 지적,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회경(1981)의 연구에서도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어머니가 자녀 양육역할 수행도 잘 해 나갔고, 자녀의 적응도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에 대한 태도나 직업 선호도가 자녀의 적응 및 유능성에 영향을 미쳐, 직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좋은 어머니의 자녀가 가장 높은 사회적 적응 및 개인적 적응점수를 보였으며(Woods, 1972), 현재의 어머니의 직업이 이전부터 원했던 직업일 경우, 자녀의 학교적응이나 유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Farel, 1980)

## (2) 취업 동기

어머니의 취업동기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김윤숙(1989)은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자아실현의 이유로 취업한 어머니가 가장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Alvarez(1985)의 연구에서도, 일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취업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3) 근무시간 및 근무년수

Farel(1980)은, 어머니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아동의 과제지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Easterbrooks 와 Goldberg(1985)의 연구결과, 취업자체는 3세 유아의 발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태도에 있어서 시간제 근무 어머니나 비 취업모들이 더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윤숙(1989)의 연구에서도, 하루 중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을 수록, 취업기간이 짧을 수록 더 애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4) 아버지의 지지정도

아버지가 어머니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때, 어머니는 높은 성취를 이루며 아동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이나 학업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된다(Hoffman, 1974). 그러므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버지의 실천적인 도움은 직접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Hoffman, 1986).

외국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아버지들의 가사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Hoffman, 1989),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가사일에 좀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사참여나 자녀양육에 대한 의식변화와 실천적 측면이 병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운(1989)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지지정도가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모의 양육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

## 2. 사회 인구학적 변인

### (1)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들과 딸에 대한 기대나 태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숙(1988)의 연구에서는 여아보다 남아가 부모를 더 자율지향적, 합리지향적으로 지각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강윤숙(198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지각하는데 있어서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생순위 및 형제유무에 따라서도 양육태도에서 차이를 보여, 와동이나 장남에게는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며(Falbo & Polit, 1987), 애정·수용적이면서(김진남, 1987),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보다 지나치게 과잉보호하기 쉽다고 한다(Mussen, P.H., Conger, J.J. & Kagan, J., 1980).

### (2)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능력에 대한 성차연구에서, Ford(1982)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더 우세한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MacDonald와 Parke(1984)의 연구에서는 남아가 더욱 사교성이 풍부하며 자기 확신적이었다고 한다. Gesten(1976)의 연구에서는 유능성에 관한 5개 요인 중 대부분이 여아의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출생순위나 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본 연구 중 Snow(1981)의 연구에서는 외동이 가장 사교적이었고, 둘째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나, Lieberman(1977)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숙경(1989)의 연구에서는 자율성 영역에서만 외동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박경숙(1973)은 핵가족의 유아들이 대가족의 유아들보다 활동성과 지배성이 높았다고 보고한 반면, 이경희(1978)는 확대가족의 아동이 핵가족의 아동보다 사회성발달에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고 하였다.

사회 경제적인 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Gottman, Gonso & Rasmussen, 1975; 이해영, 1986).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머니의 다양한 취업 변인 및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되므로 이들의 관계를 인과모형을 통해 밝혀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A. 연구 대상

본 연구대상은 취업모 245명과 이들의 자녀들로 국민학교 4-6학년예 재학중인 아동245명이었다. 대상 아동을 국민학교 고학년으로 한 것은 아동에 의해 지각된 양육행동을 측정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이 중 어머니의 직업 분포를 보면, 자영 상공업이 36.0%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단순 노무직이 31.6%, 피 고용기능인이 20.8%의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가계 총 소득을 보면, 61-90만원이 22.7%로 가장 많았고, 91-120만원과 120-150만원이 22.3%로 동일한 분포를 보였다.

#### B.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동용 질문지와 어머니용 질문지로서, 아동용 질문지는 아동의 성, 출생순위 및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등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어머니용 질문지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5문항, 어머니의 취업 변인에 관한 9문항,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평가를 위한 23문항 등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 1. 취업 변인

취업한 어머니들의 배경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Hoffman, 1961; Farel, 1980; 이회경, 1981; 유신희, 1986; 김윤숙, 1989)을 근거로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 직업 선호도, 직업에 대한 태도, 취업 동기, 근무시간, 근무년수 및 아버지의 지지 정도에 관한 9문항을 Likert척도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직업 만족도(1문항)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어느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며, 직업 선호도(1문항)는 지금의 직업이 자신이 이전부터 선호하던 직업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태도(1문항)는 자신의 직업이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묻는

문항이며, 아버지의 지지정도(2문항)는 아버지가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에 직접 참여하는 실천적 측면과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는 정신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취업 변인에 관한 문항들은 중간점수(3점)를 기준으로 하여 '매우 그렇다'의 5점과 '대체로 그렇다'의 4점에 표시한 집단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과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2점에 표시한 집단을 각각 높음과 낮음의 두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 2.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취업모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성연, 이숙(1990)의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자녀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1문항을 포함하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나, 예비조사 결과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일관성 있는 규제'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보호'요인, '권위주의적 통제'요인, 그리고 '일관성 있는 규제'요인들이 복합되어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로 보아 이들 요인들의 개념이 아동들에게는 개념적으로 동일하게 지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44문항을 포함하는 5개의 요인, 즉 합리적인 지도(9문항,  $\alpha=.75$ ), 애정(12문항,  $\alpha=.82$ ), 권위주의적 통제(11문항,  $\alpha=.61$ ), 성취(6문항,  $\alpha=.68$ ), 적극적인 참여(6문항,  $\alpha=.67$ )등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국민학교 아동들이 이해하고 표기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1점에서 3점까지의 척도로 구성하였다.

##### 3.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의 사회적 능력 평가도구는 Pease등(1979)의 Iowa Social Competence Scale 중 어머니용 질문지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ISCS는 총 26개 문항이나 예비조사를 거쳐 신뢰도가 낮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23문항으로 된 6개의 요인, 즉 과제 지향성(4문항,  $\alpha=.70$ ), 방해성(5문항,  $\alpha=.58$ ), 지도력(5문항,  $\alpha=.67$ ), 신체적 활동성(2문항,  $\alpha=.79$ ), 부모에 대한 애정(4문항,  $\alpha=.63$ ), 불안정성(3문항,  $\alpha=.50$ )으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

〈표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특 성                | 구 분        | 빈 도(%)     | 특 성                       | 구 분                       | 빈 도(%)     |
|--------------------|------------|------------|---------------------------|---------------------------|------------|
| 아동의<br>학 년         | 4          | 68( 28.8)  | 어머니의<br>학 력               | 국 졸                       | 39( 16.0)  |
|                    | 5          | 75( 31.8)  |                           | 중 졸                       | 113( 46.6) |
|                    | 6          | 93( 39.4)  |                           | 고 졸                       | 78( 32.1)  |
|                    | 합 계        | 236(100.0) |                           | 대 졸                       | 12( 4.9)   |
| 아동의<br>성           | 남          | 86( 36.8)  | 아버지의<br>직 업               | 대학원이상                     | 1( 0.4)    |
|                    | 여          | 148( 63.2) |                           | 합 계                       | 194(100.0) |
|                    | 합 계        | 234(100.0) |                           | 자 본 가                     | 2( 0.9)    |
| 출 생<br>순 위         | 첫 째        | 89( 38.5)  | 어머니의<br>직 업               | 전 문 직                     | 12( 5.1)   |
|                    | 둘 째        | 74( 32.1)  |                           | 사 무 직                     | 38( 16.1)  |
|                    | 세 째        | 51( 22.0)  |                           | 자영상공업                     | 89( 37.9)  |
|                    | 네 째        | 11( 4.8)   |                           | 피고용기능<br>인                | 53( 22.6)  |
|                    | 다섯째이상      | 6( 2.6)    |                           | 단순노무직                     | 41( 17.4)  |
| 합 계                | 231(100.0) | 합 계        | 235(100.0)                |                           |            |
| 가 족<br>형 태         | 핵 가족       | 200( 83.7) | 어머니의<br>직 업               | 자 본 가                     | 1( 0.4)    |
|                    | 대 가족       | 39( 16.3)  |                           | 전 문 직                     | 25( 11.2)  |
|                    | 합 계        | 239(100.0) |                           | 사 무 직                     | 81( 36.0)  |
| 총소득<br>(단위:만<br>원) | 60 이하      | 33( 14.2)  | 어머니의<br>직 업               | 자영상공업                     | 47( 20.8)  |
|                    | 61- 90     | 53( 22.7)  |                           | 피고용기능<br>인                | 71( 31.6)  |
|                    | 91- 120    | 52( 22.3)  |                           | 단순노무직                     | 225(100.0) |
|                    | 121- 150   | 52( 22.3)  |                           | 합 계                       | 225(100.0) |
|                    | 150 이상     | 43( 18.5)  |                           | 아버지의<br>연 령<br>(단위:<br>세) | 30 - 35    |
| 합 계                | 233(100.0) | 36 - 40    | 79( 32.6)                 |                           |            |
| 아버지의<br>학 력        | 국 졸        | 20( 8.3)   | 41 - 45                   |                           | 99( 40.9)  |
|                    | 중 졸        | 75( 31.0)  | 46 이상                     | 43( 17.8)                 |            |
|                    | 고 졸        | 119( 49.2) | 합 계                       | 242(100.0)                |            |
|                    | 대 졸        | 25( 10.3)  | 어머니의<br>연 령<br>(단위:<br>세) | 30 - 35                   | 55( 22.8)  |
|                    | 대학원이상      | 3( 1.2)    |                           | 36 - 40                   | 119( 49.4) |
| 합 계                | 242(100.0) | 41 이상      |                           | 67( 27.8)                 |            |
|                    |            |            | 합 계                       | 241(100.0)                |            |

주 : 무응답이 있으므로 합계가 다름.

은 1점부터 5점까지의 Likert척도로 되어있다.

### 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조사, 본조사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는 1991년 12월 19일 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위치한 S국민학교 4-6학년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거나 표현이 부적절한 문항을 수정 보완한후,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1992년 2월 7일 부터 21일 까지 서울시내에 위치한 3개 국민학교 4-6학년 아동 320명과 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부실한 것을 제외한 총 245쌍(490명)의 응답이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 D.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ANOVA, 경로분석등을 사용하였고, 추후검증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취업 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능력의 차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가 직업에 만족할 경우, 아동은 '과제 지향성'이 높았으며, 아버지의

<표 2> 취업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 독립변인(N)            |             | 종속변인      |      |        | 과제 지향성    |      |        | 방해성       |      |        | 지도력 |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bar{X}$ | S.D. | t      |     |  |  |
| 직업<br>만족도          | 높음<br>(87)  | 15.05     | 3.04 | -1.91* | 11.00     | 3.61 | -0.64  | 16.78     | 3.64 | -2.75* |     |  |  |
|                    | 낮음<br>(49)  | 13.98     | 3.15 |        | 10.65     | 2.48 |        | 15.00     | 3.32 |        |     |  |  |
| 직업<br>선호도          | 높음<br>(157) | 15.37     | 2.61 | -1.49  | 11.17     | 3.40 | -2.05* | 16.17     | 3.56 | -2.66* |     |  |  |
|                    | 낮음<br>(42)  | 14.56     | 3.16 |        | 10.03     | 3.09 |        | 15.10     | 3.58 |        |     |  |  |
| 직업에<br>대한<br>태도    | 높음<br>(93)  | 14.53     | 3.52 | 0.10   | 10.64     | 3.32 | -0.40  | 16.43     | 3.77 | 1.10   |     |  |  |
|                    | 낮음<br>(96)  | 14.58     | 2.84 |        | 10.43     | 3.53 |        | 16.03     | 3.58 |        |     |  |  |
| 아버지의<br>정신적<br>지지도 | 높음<br>(82)  | 15.35     | 2.80 | -1.11  | 10.43     | 3.35 | 0.65   | 16.36     | 3.41 | -1.54  |     |  |  |
|                    | 낮음<br>(69)  | 14.81     | 3.12 |        | 10.82     | 3.79 |        | 15.44     | 3.83 |        |     |  |  |
| 아버지의<br>실천적<br>지지도 | 높음<br>(117) | 15.32     | 2.64 | -2.98* | 10.25     | 3.39 | 0.52   | 15.75     | 3.46 | -0.92  |     |  |  |
|                    | 낮음<br>(86)  | 13.99     | 3.48 |        | 10.50     | 3.78 |        | 15.26     | 4.02 |        |     |  |  |



〈표 2〉 계속

| 독립변인(N)      |          | 중속변인      |      |       | 신체적 활동성   |      |        | 부모에 대한 애정 |      |       | 불 안정성     |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직업 만족도       | 높음 (87)  | 8.52      | 1.58 | -1.47 | 15.57     | 3.68 | -1.38  | 12.69     | 3.11 | -0.30 |           |      |   |
|              | 낮음 (49)  | 8.00      | 2.12 |       | 14.69     | 3.41 |        | 12.52     | 3.07 |       |           |      |   |
| 직업 선호도       | 높음 (157) | 8.27      | 1.76 | -0.37 | 15.01     | 3.42 | -0.71  | 12.44     | 3.00 | -1.18 |           |      |   |
|              | 낮음 (42)  | 8.38      | 1.59 |       | 15.43     | 3.33 |        | 13.08     | 3.19 |       |           |      |   |
| 직업에 대한 태도    | 높음 (93)  | 8.43      | 1.58 | 0.61  | 15.27     | 3.41 | -0.06  | 12.24     | 3.00 | -1.40 |           |      |   |
|              | 낮음 (96)  | 8.28      | 1.75 |       | 15.30     | 3.40 |        | 12.88     | 3.18 |       |           |      |   |
| 아버지의 정신적 지지도 | 높음 (82)  | 8.57      | 1.59 | -0.86 | 15.95     | 3.28 | -2.28* | 12.42     | 3.18 | 1.117 |           |      |   |
|              | 낮음 (69)  | 8.34      | 1.77 |       | 14.72     | 3.31 |        | 13.00     | 2.77 |       |           |      |   |
| 아버지의 실천적 지지도 | 높음 (117) | 8.35      | 1.54 | 0.16  | 15.16     | 3.55 | -0.37  | 12.50     | 2.80 | -0.27 |           |      |   |
|              | 낮음 (86)  | 8.39      | 1.80 |       | 14.98     | 3.60 |        | 12.39     | 3.10 |       |           |      |   |

\* p<.05

주 : 무응답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였으므로 합계가 다름.

실천적 측면의 지지정도가 높을 경우도 아동의 '과제 지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직업에 만족할 수록 아동의 유능성 및 적응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었다는 이희경(1981), 유신희(198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의 정신적 지지정도가 높은 경우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았다. 어머니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경우는 아동의 '방해성'이 낮았으며,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와 직업 선호도가 높은 경우, 아동은 '지도력'이 높았다. 한편, 취업동기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자신의 향상 때문에 취업한 어머니의 자녀가 '부모에 대한 애정'이 가장 낮았다.

〈연구문제 2〉 사회 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능력의 차이.

출생순위로는 첫째(43.2%)와 둘째이하(56.8%)를 비교한 결과 〈표 3〉과 같이 첫째보다는 둘째이하가 '과제 지향성'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았다. 아동의 성 및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에서 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아동은 '지도력'영역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최옥화(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보인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다는 결과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의 차이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용임, 1988; 김정아, 199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취업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차이.

〈표 5〉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직업 선호도가 높은

〈표 3〉 가족형태, 아동의 성, 출생순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 종속변인<br>독립변인(N) |              | 과제 지향성    |      |        | 방해성       |      |         | 지도력       |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bar{X}$ | S.D. | t     |
| 가족 형태           | 핵가족<br>(200) | 14.58     | 3.20 | 0.73   | 10.50     | 3.33 | 0.44    | 15.72     | 3.69 | -0.79 |
|                 | 대가족<br>(39)  | 14.97     | 2.69 |        | 10.76     | 3.70 |         | 15.20     | 3.61 |       |
| 아동의 성           | 남아<br>(86)   | 14.61     | 2.98 | 0.70   | 10.94     | 3.43 | 1.04    | 15.13     | 3.64 | 1.80  |
|                 | 여아<br>(148)  | 14.69     | 3.21 |        | 10.31     | 3.35 |         | 15.89     | 3.69 |       |
| 출생 순위           | 첫째<br>(89)   | 14.12     | 3.55 | -1.85* | 10.42     | 3.56 | -0.87   | 15.23     | 3.75 | -1.72 |
|                 | 기타<br>(148)  | 14.99     | 2.75 |        | 10.85     | 3.34 |         | 16.14     | 3.51 |       |
| 가족 형태           | 핵가족<br>(200) | 8.37      | 1.66 | 0.15   | 15.09     | 3.51 | -0.22   | 12.55     | 2.90 | 0.28  |
|                 | 대가족<br>(39)  | 8.41      | 1.71 |        | 14.95     | 3.78 |         | 12.69     | 3.23 |       |
| 아동의 성           | 남아<br>(86)   | 8.51      | 1.78 | 0.70   | 14.66     | 3.65 | 0.81    | 12.61     | 2.82 | 0.15  |
|                 | 여아<br>(148)  | 8.27      | 1.62 |        | 15.34     | 3.43 |         | 12.61     | 3.00 |       |
| 출생 순위           | 첫째<br>(89)   | 8.19      | 1.70 | -1.51  | 14.52     | 3.48 | -2.64** | 12.60     | 2.77 | -0.13 |
|                 | 기타<br>(148)  | 8.56      | 1.67 |        | 15.82     | 3.38 |         | 12.66     | 3.18 |       |

\*p&lt;.05, \*\*p&lt;.01.

경우,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요인을 더 낮게 지각했으며, 아버지의 지지도 중 실천적인 측면의 지지정도가 높을 경우 아동은 어머니의 '성취'요인의 양육행동을 더 높게 지각하였다. 여기서 아버지의 정신적인 측면의 지지정도는 유의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또한, 취업 동기에 따른 차이를 보기위하여 ANOVA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요인의 양육행동을 가장 낮게 지각한 것( $F=2.59, p<.05$ )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 사회 인구학적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도의 차이.

〈표 6〉에서와 같이, 아버지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애정'적인 행동과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학력이 중졸이하의 저학력일 경우,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요인의 양육행동을 가장 낮게 지각하였다. 한편, 아동의 성, 출생순위 및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문제 5〉 취업 변인, 사회 인구학적변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문제 5의 관계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변인들간의 회귀분석표를 기초로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이 중 5% 수준에서 유의한 것만으로 인

<표 4> 아버지의 학력, 소득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의 차이

| 독립변인(N)     |              | 종속변인      |      |      | 과제 지향성    |      |      | 방해성       |      |       | 지도력 |  |  |
|-------------|--------------|-----------|------|------|-----------|------|------|-----------|------|-------|-----|--|--|
|             |              | $\bar{X}$ | S.D. | F    | $\bar{X}$ | S.D. | F    | $\bar{X}$ | S.D. | F     |     |  |  |
| 아버지의 학력     | 중졸이하 (95)    | 14.47     | 2.31 | 0.37 | 10.65     | 2.80 | 0.67 | 15.14     | 3.57 | 3.58* |     |  |  |
|             | 고졸이하 (119)   | 14.75     | 3.05 |      | 10.33     | 3.76 |      | 15.66     | 3.61 |       |     |  |  |
|             | 전문대 이상(28)   | 14.96     | 2.86 |      | 11.11     | 3.45 |      | 17.21     | 3.62 |       |     |  |  |
| 소득 (단위: 만원) | 60 이하 (33)   | 14.25     | 3.22 | 1.76 | 11.27     | 3.12 | 0.89 | 15.16     | 3.59 | 2.01  |     |  |  |
|             | 61-90 (53)   | 14.23     | 3.29 |      | 10.06     | 3.02 |      | 14.96     | 3.76 |       |     |  |  |
|             | 91-120 (52)  | 14.57     | 2.88 |      | 10.86     | 3.13 |      | 15.42     | 3.41 |       |     |  |  |
|             | 121-150 (52) | 15.64     | 2.42 |      | 10.22     | 3.56 |      | 16.14     | 3.63 |       |     |  |  |
|             | 151 이상 (43)  | 14.83     | 3.39 |      | 10.71     | 3.93 |      | 16.79     | 3.60 |       |     |  |  |

| 독립변인(N)     |              | 종속변인 |      |      | 신체적 활동성 |      |        | 부모에 대한 애정 |      |      | 불안정성 |  |  |
|-------------|--------------|------|------|------|---------|------|--------|-----------|------|------|------|--|--|
|             |              | X    | S.D. | F    | X       | S.D. | F      | X         | S.D. | F    |      |  |  |
| 아버지의 학력     | 중졸이하 (95)    | 8.41 | 1.61 | 0.22 | 14.57   | 3.68 | 2.21   | 12.81     | 2.71 | 1.06 |      |  |  |
|             | 고졸이하 (119)   | 8.30 | 1.76 |      | 15.25   | 3.47 |        | 12.53     | 3.08 |      |      |  |  |
|             | 전문대 이상(28)   | 8.43 | 1.69 |      | 16.04   | 3.06 |        | 11.89     | 2.97 |      |      |  |  |
| 소득 (단위: 만원) | 60 이하 (33)   | 8.31 | 1.51 | 0.17 | 14.24   | 3.04 | 3.63** | 13.10     | 2.90 | 1.95 |      |  |  |
|             | 61-90 (53)   | 8.38 | 1.75 |      | 14.43   | 3.55 |        | 12.44     | 3.02 |      |      |  |  |
|             | 91-120 (52)  | 8.21 | 1.88 |      | 14.73   | 3.87 |        | 12.40     | 2.85 |      |      |  |  |
|             | 121-150 (52) | 8.31 | 1.59 |      | 16.19   | 2.67 |        | 13.16     | 2.96 |      |      |  |  |
|             | 151 이상 (43)  | 8.49 | 1.76 |      | 16.19   | 3.53 |        | 11.60     | 3.00 |      |      |  |  |

\*p<.05, \*\*p<.01.

〈표 5〉 취업변인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 종속변인<br>독립변인(N)    |             | 합리적 지도    |      |       | 애 정       |      |       | 권위주의적 통제  |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직업<br>만족도          | 높음<br>(87)  | 22.23     | 3.46 | -0.55 | 30.33     | 5.28 | -1.19 | 22.21     | 3.48 | 0.28  |
|                    | 낮음<br>(49)  | 21.89     | 3.32 |       | 29.27     | 4.24 |       | 22.39     | 3.84 |       |
| 직업<br>선호도          | 높음<br>(157) | 22.81     | 3.05 | 0.64  | 28.67     | 4.45 | 1.88* | 22.47     | 3.67 | -0.58 |
|                    | 낮음<br>(96)  | 22.16     | 3.23 |       | 30.12     | 4.45 |       | 22.11     | 3.34 |       |
| 직업에<br>대한<br>태도    | 높음<br>(93)  | 22.36     | 3.14 | -0.57 | 30.44     | 4.67 | -0.36 | 21.82     | 3.54 | 1.53  |
|                    | 낮음<br>(69)  | 22.09     | 3.37 |       | 30.18     | 5.03 |       | 22.62     | 3.41 |       |
| 아버지의<br>정신적<br>지지도 | 높음<br>(82)  | 22.52     | 3.07 | -1.23 | 30.35     | 4.97 | -1.27 | 22.39     | 3.81 | 0.08  |
|                    | 낮음<br>(69)  | 21.88     | 2.93 |       | 29.37     | 4.16 |       | 22.44     | 3.12 |       |
| 아버지의<br>실천적<br>지지도 | 높음<br>(117) | 22.33     | 3.20 | -0.64 | 30.44     | 4.77 | -1.02 | 22.32     | 3.30 | -0.71 |
|                    | 낮음<br>(86)  | 22.05     | 3.02 |       | 29.78     | 4.23 |       | 21.98     | 3.52 |       |

| 종속변인<br>독립변인(N)    |             | 성취        |      |        | 적극적인 참여   |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직업<br>만족도          | 높음<br>(87)  | 15.40     | 2.30 | -0.14  | 11.20     | 2.47 | -1.47 |
|                    | 낮음<br>(49)  | 15.34     | 2.09 |        | 10.55     | 2.29 |       |
| 직업<br>선호도          | 높음<br>(157) | 15.24     | 2.09 | 0.19   | 10.52     | 2.38 | 1.42  |
|                    | 낮음<br>(42)  | 15.32     | 2.27 |        | 11.10     | 2.30 |       |
| 직업에<br>대한<br>태도    | 높음<br>(93)  | 15.11     | 2.16 | 1.48   | 10.95     | 2.39 | 0.87  |
|                    | 낮음<br>(96)  | 15.60     | 2.32 |        | 11.26     | 2.48 |       |
| 아버지의<br>정신적<br>지지도 | 높음<br>(82)  | 15.41     | 2.25 | 0.21   | 11.26     | 2.49 | -0.85 |
|                    | 낮음<br>(69)  | 15.48     | 2.23 |        | 10.91     | 2.45 |       |
| 아버지의<br>실천적<br>지지도 | 높음<br>(117) | 15.71     | 2.11 | -2.13* | 11.22     | 2.41 | -0.98 |
|                    | 낮음<br>(86)  | 15.06     | 2.18 |        | 10.88     | 2.37 |       |

\*p&lt;.05

〈표 6〉 부모학력에 따른 양육행동의 차이

| 독립변인(N)         |               | 종속변인      |      |      | 합리적 지도    |      |       | 애 정       |      |      | 권위주의적 통제 |  |  |
|-----------------|---------------|-----------|------|------|-----------|------|-------|-----------|------|------|----------|--|--|
|                 |               | $\bar{X}$ | S.D. | F    | $\bar{X}$ | S.D. | F     | $\bar{X}$ | S.D. | F    |          |  |  |
| 아버지<br>의<br>학 력 | 중졸이하<br>(95)  | 21.91     | 3.24 | 2.22 | 28.99     | 4.65 | 3.41* | 22.37     | 3.84 | 2.74 |          |  |  |
|                 | 고졸이하<br>(119) | 21.94     | 3.21 |      | 30.37     | 4.31 |       | 21.62     | 3.07 |      |          |  |  |
|                 | 전문대<br>이상(28) | 23.29     | 3.13 |      | 31.11     | 5.63 |       | 23.19     | 3.19 |      |          |  |  |
| 어머니<br>의<br>학 력 | 중졸이하<br>(152) | 21.89     | 3.23 | 1.07 | 29.36     | 4.55 | 3.50* | 22.37     | 3.61 | 1.16 |          |  |  |
|                 | 고졸이하<br>(78)  | 22.53     | 3.29 |      | 31.05     | 4.54 |       | 21.67     | 3.25 |      |          |  |  |
|                 | 전문대<br>이상(13) | 21.77     | 2.92 |      | 29.46     | 5.62 |       | 21.58     | 2.15 |      |          |  |  |

| 독립변인(N)         |               | 종속변인      |      |      | 성 취       |      |       | 적극적인 참여 |  |  |
|-----------------|---------------|-----------|------|------|-----------|------|-------|---------|--|--|
|                 |               | $\bar{X}$ | S.D. | F    | $\bar{X}$ | S.D. | F     |         |  |  |
| 아버지<br>의<br>학 력 | 중졸이하<br>(95)  | 15.07     | 2.49 | 1.01 | 10.69     | 2.50 | 2.84* |         |  |  |
|                 | 고졸이하<br>(119) | 15.50     | 2.02 |      | 11.02     | 2.29 |       |         |  |  |
|                 | 전문대<br>이상(28) | 15.43     | 2.23 |      | 11.89     | 2.53 |       |         |  |  |
| 어머니<br>의<br>학 력 | 중졸이하<br>(152) | 15.34     | 2.29 | 0.04 | 10.74     | 2.51 | 2.15  |         |  |  |
|                 | 고졸이하<br>(78)  | 15.33     | 2.09 |      | 11.39     | 2.19 |       |         |  |  |
|                 | 전문대<br>이상(13) | 15.15     | 2.67 |      | 11.54     | 2.40 |       |         |  |  |

\*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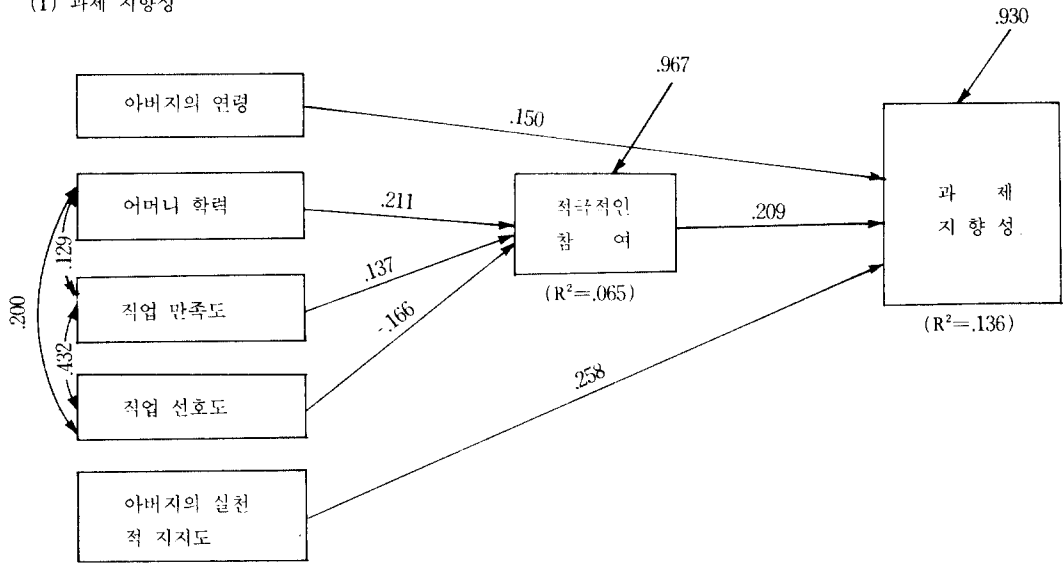
과모형을 구성해 본 결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과제 지향성’(그림 2), ‘지도력’(그림 3), ‘부모에 대한 애정’(그림 4), ‘불안정성’(그림 5)에 대해서만 유의한 인과모형이 구성되었다.

(1) 과제 지향성

〈그림 2〉에서 보면, 어머니의 학력( $\beta=.211$ )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 $\beta=.137$ )가 높을수록, 그리고 직업 선호도( $\beta=-.166$ )가 낮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 행동( $R^2=.065$ )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Yarrow(196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잘 계획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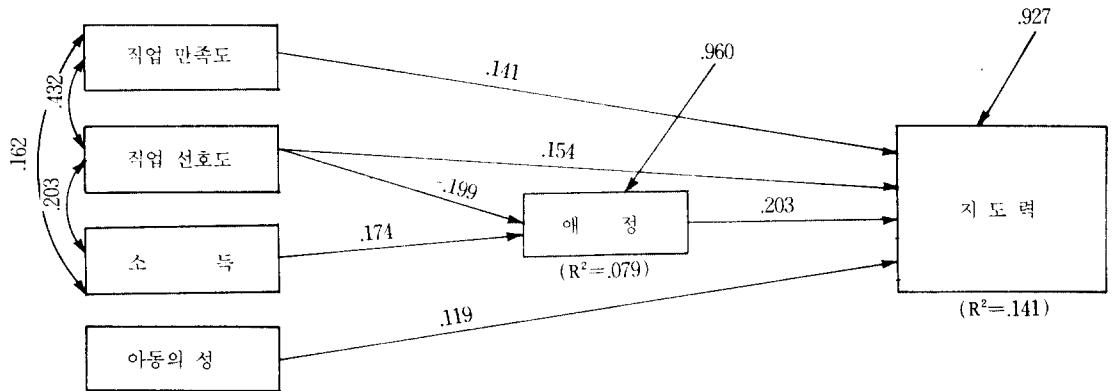
활동에 자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동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상하려는 경향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나이( $\beta=.150$ )가 많을수록, 실천적 지지정도( $\beta=.258$ )가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요인의 양육행동( $\beta=.209$ )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녀에게 지각될수록, 아동의 ‘과제 지향성’( $R^2=.136$ )은 우수하였다. 여기서 어머니의 학력, 직업 만족도 및 직업 선호도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요인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아동의 ‘과제 지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1) 과제 지향성



〈그림 2〉 아동의 사회적능력 중 '과제 지향성'에 대한 인과 모형

(2) 지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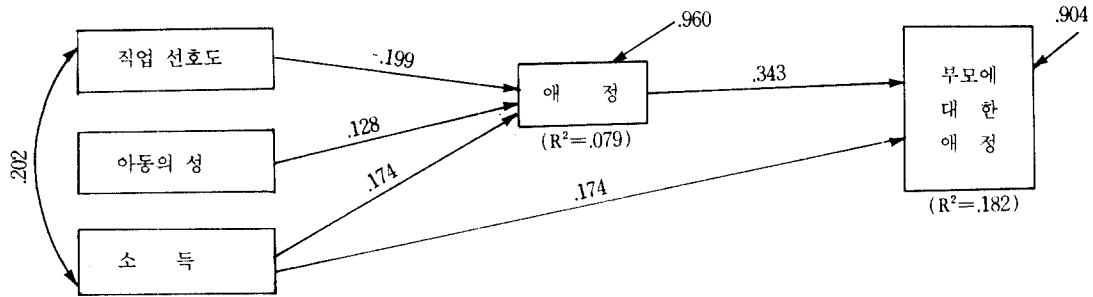
〈그림 3〉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에 대한 인과 모형

(2) 지도력

〈그림 3〉에서 보면, 어머니의 직업 선호도( $\beta=.199$ )가 낮을수록, 소득( $\beta=.174$ )이 많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애정'요인의 양육행동( $R^2=.079$ )을 더 많이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 $\beta=.141$ )가 높고, 직업 선호도( $\beta=.154$ )가 높을 수

록, 그리고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행동( $\beta=.203$ )을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의 '지도력'이 우수했으며, 남아보다는 여아의 '지도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Hoffman(1961), 이희경(1981)의 연구에서, 직업 선호도 및 만족도가 자녀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여

(3) 부모에 대한 애정



〈그림 4〉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부모에 대한 애정'의 인과 모형

기서 어머니의 직업 선호도는 아동의 '지도력'에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를 나타내고 있으며, 소득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요인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 부모에 대한 애정

〈그림 4〉에서 보면, 어머니의 직업 선호도( $\beta = .199$ )가 낮을 수록, 소득( $\beta = .174$ )이 많을 수록, 여아( $\beta = .128$ )일 수록, 어머니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했으며,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애정'요인( $\beta = .343$ )을 많이 지각할 수록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정'(R²=.182)이 높았다. 여기서 소득변인은 어머니의 '애정'요인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4) 불안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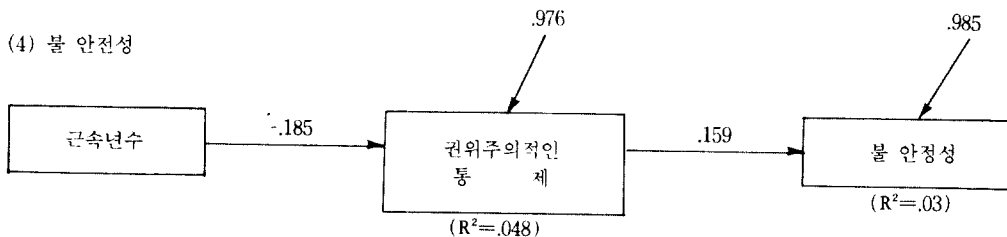
〈그림 5〉에서 보면,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요

인( $\beta = .159$ )의 양육행동만이 아동의 '불안정성'(R²=.03)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어머니의 '권위주의적 통제'방식의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하는 아동일 수록 '불안정성'수준은 높았다. 한편, 어머니의 근속년수는 아동의 '불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근속년수가 길수록 어머니는 덜 권위주의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고, 아동의 불안정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취업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직업 만족도, 직업선호도, 아버지의 지지 정도가 높을 경우, 아동의 사회적능력 중 '과제 지향성', '지도력', 이나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았고 '방



〈그림 5〉 아동의 사회적 능력 중 '불안정성'에 대한 인과 모형

해성'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모 가정의 경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이 반드시 취업자체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으로 인한 어머니의 심리적인 상태가 긍정적인 경우 아동발달에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2.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서 출생순위가 영향을 미쳐, 둘째 이하일 경우 '과제지향성'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았고, 가정의 소득수준이나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경우 아동의 '지도력'과 부모에 대한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취업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직업선호도가 높을 경우,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낮게 지각하였는데, 여기서 어머니의 직업선호도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 것과는 달리, 아동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덜 애정적인 것으로 지각하여 부적인 관계가 나타난 것이 특이한 결과이다. 즉 아동들은 어머니가 직업에 대해 선호할 수록, 아동 자신들에게는 소홀하거나 덜 애정을 쏟는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동기가 경제적 이유인 경우 및 아버지의 실천적인 지지정도가 낮을 경우, '적극적인 참여' 요인과 '성취' 요인의 양육행동을 적게 지각하였고,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 이상일 경우, '애정'요인과 '적극적인 참여'요인의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의 높은 사회경제적인 수준 및 아버지와의 관계가 자녀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아버지가 가정에서 자녀양육이나 가사일에 직접적으로 많이 참여 할 수록, 그리고 아버지의 연령이 많을 수록, 아동의 '과제 지향성'이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실천적 측면의 지지정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이 아버지의 연령과 실천적인 지지정도가 아동의 사회적능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로 보아, 아동양육이나 발달이 어머니와의 관계로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업모 가정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의 부족이 아버지의 역할로 보충되어 질 수 있으므로, 앞

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모두와의 관계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그 밖에 어머니의 근속년수는 아동의 '불안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즉, 어머니의 근속년수가 길수록, 어머니는 덜 '권위주의적 통제'방식으로 아동을 양육하였고, 결과적으로 아동의 불안정성 수준은 낮아서 긍정적인 사회적 적응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취업을 둘러싼 배경변인, 즉 어머니의 직업만족, 직업선호도, 취업동기 및 아버지의 지지정도와 같은 변인들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취업에 대한 아버지의 정신적인 지지와 실천적인 지지측면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며 실천적으로 지지해주는 경우가 아동발달 뿐 아니라 자녀양육역할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대상표집시 중하류층에 편중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지니나 취업모 자녀들의 사회적 능력 발달을 단순한 취업유무가 아닌 다양한 취업 변인들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직접·간접적인 환경의 영향을 밝혀보려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모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다른 심리적인 배경변인이나 아버지와와의 관계를 포함시키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강윤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 두 자녀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 공인숙,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 김숙경, "외동아와 형제아의 모 - 자녀관계 및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4) 김윤숙, "취업모와 비 취업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5) 김정아,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6) 김진남, “외동이와 두 자녀 이상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7) 박경숙, “핵가족이 어린이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3.
  - 8) 박범실,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9) 박성연, 이숙,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 1, 141-56, 1990.
  - 10) 박응임, “사회계층에 따른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11) 유신희, “어머니의 직업과 유아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2) 윤정혜,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3) 이경희, “취학전 아동의 사회성숙도에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14) 이숙,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15) 이혜영, “아동의 사회적 역량에 관한 일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6) 이희경, “모의 취업이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의 자녀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17) 전보윤,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만족도가 아동양육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8) 최옥화, “아버지의 배경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19) Ainsworth, M.D.S. & Bell, S.M., “mother-infant interac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mpetence”. In K. Conolly and J. Bruner(Eds.), *The Growth of Compet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98-118.
  - 20) Alvarez, W.F., “The meaning of maternal employment for mother and their perceptions of their 3-year-ol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6, 1985, 350-60.
  - 21) Baumrind, D., & Black, A.E.,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1967, 291-327.
  - 22) Bronfenbrenner, U., “Toward a theoretical model for the analysi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a social contact,” In J.C. Glid well(Ed.), *Parental attitudes and child behavior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1961.
  - 23) Bronfenbrenner, U., “Ecology of family as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986, 723-42.
  - 24) Cowen, E.L., Pederson, A., Babigan, H., Izzo, L. D., & Trost. M.A.,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973, 438-46.
  - 25) Easterbrooks, M.A., & Goldberg, W.A.,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toddlers, mothers, and fa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985, 774-83.
  - 26) Falbo & Polit, “A only Child and Personality Development: A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987, 309-25.
  - 27) Farel, A.M., “Effects of preferred maternal employment, and so-ciodemographic status on school adjustment and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1, 1980, 1179-86.
  - 28) Ford, M.E.,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 1982, 323-40.
  - 29) Gesten, E.L., “A health resources inventory: The development of primary grad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4, 5, 1976,

- 775-86.
- 30) Gottman, J., Gonso, J. & Rasmussen, B.,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1975, 709-18.
- 31) Hock, E.,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and their infants: a comparative study of maternal caregiving characteristics and infant 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26, 1980, 79-101.
- 32) Hoffman, L.W.,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 *Child Development*, 32, 1961, 187-197.
- 33) Hoffman, L.W.,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Child-A Review of the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0, 2, 1974, 204-28.
- 34) Hoffman, L.W., "Work, family, and the child," In M.S. Pallak & R.O. Perloff(Eds.), *Psychology and Work: Productivity, change, and employment*(pp173-22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86.
- 35) Hoffman, L.W.,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 1989, 283-92.
- 36) Liberman, A.F., "Preschoolers' competence with a peer: Relation with attachment and peer experience," *Child Development*, 48 1977, 1277-87.
- 37) MacDonald, K. & Parke, R.D.,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a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984, 1265-77.
- 38) Menaghan, E.G. & Parcel, T.L., "Parental employment and family life: Research in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1990, 1079-98.
- 39) Mussen, P.H., Conger, J.J. & Kagan J.,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Ed., 1980.
- 40) O'Malley, J.M.,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23, 1977, 29-44.
- 41) Pease, D., Clark, S.G., & Crase, S.J.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School Age and Preschool Manual*, Iowa State Research Foundation, Inc. 1979.
- 42) Pettit, G.S., Dodge, K.A., & Brown, M.M., "Ear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988, 107-29.
- 43) Putallaz, M., "Maternal behavior and children's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58, 1987, 324-40.
- 44) Schaefer, E.S., "Multivariate measurement and factorial structure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ternal and parent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16, 1961, 345-46.
- 45) Snow, M.R., Jackin, C.N. & Maccoby, E.T., "Birth-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i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 1981, 589-95.
- 46) Woods, M.B.,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6, 1972, 14-25.
- 47) Yarrow, M.R., Scott, P., DeLeeuw, L., & Heining, C., "Child rearing in families of working and nonworking mothers," *Sociometry*, 25, 1962, 122-140.